

## Galatians 4

Tape #C2598

By Chuck Smith

갈라디아서

### Chapter 4

*Now I say, That an heir, as long as he is a child, differeth nothing from a servant, though he be lord of all; But is under tutors and governors until the time appointed of the father (4:1-2).*

So, Paul now gives us an illustration of a... Here's a little child. He is born in the Rockefeller family. One day he's going to be heir to the Rockefeller fortunes. But as long as he is in kindergarten, he can't go out and sign checks for a million dollars. Though one day it'll all be his, right now he's a child. He's under the tutors; he's under the trainers, the governors who are teaching him those things that he needs to know to manage the fortune when once it becomes his. Now he's the heir of all things, but he can't really spend it yet until he comes to that appointed time of maturity and all when he's been prepared by the tutors and the teachers to then handle properly this whole vast fortune.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4:1-2)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여기에 작은 아이가 있는데 ..... 하며 실례를 들어 줍니다. 그는 록펠러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그가 록펠러 재산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나가서 백만 달러짜리 수표에 싸인을 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지라도 지금은 그가 어린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정교사인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리인들은 모든 재산이 그 어린 아이의 것이 될때 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선생들과 가정교사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그 거대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숙해져서 약속된 그 날이 차기 전에는 아직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You're an heir of God. Now, as long as we are in a state of development and maturing process, though I am the heir of all of God, I am waiting for the time appointed of the Father when I enter into that inheritance. In the meantime, I'm being trained how to handle it. Relationships.

*Even so we, when we were children, were in bondage under the elements of the world: But when the fulness of the time was come, God sent forth his Son, made of a woman, made under the law, to redeem them that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of sons. And because ye are sons, God hath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Wherefore thou art [you are] no more a servant,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4:3-7).*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에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발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동안에 내가 상속을 받도록 아버지가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훈련받습니다. 관계들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 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을 자니라.(4:3-7)

So, the law was more or less a tutor, a governor. But now in the fullness of time, Jesus came, born of Mary. He came under the Jewish law, grew up in a Jewish home, followed the Jewish law. Only, did follow it perfectly. In order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Now, this idea of being under the law is being under the sentence of the law. You see, when you violate the law, then you come under the law. That is, you have...the law has made a demand upon you. That demand must be fulfilled for you to be free.

그래서 율법은 가정교사,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차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 오셨고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유대의 법을 따랐습니다. 오직 그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 하시려고 그 율법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이제, 율법아래에 있다는 이 사상은 율법의 판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 그 법의 판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법이 요구 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려면 그 요구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

If you go speeding down Fairview Avenue eighty miles an hour, and the policeman pulls you over, writes you up, you have to go over to Harbor Municipal Court, and they will say, "Your fine is a hundred and fifty dollars." You say, "Well, I would like to see the judge, all right?" And they'll give you your day in court. And the judge will say, "You're charged here with going eighty miles an hour in a fifty mile an hour zone. Are you...how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Well, Judge, I..." "How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But I...there was..." "How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Did you go eighty miles?" "Yes, but..." "Hundred dollars." "But Judge." "You want a trial by court or jury?" "Well, I'll take a trial by court." "Well, you're guilty. Hundred dollars."

여러분이 페어뷰우 길(fairview ave.)을 80 마일의 속도로 달린다면 교통 경찰이 여러분을 정지 시키고 티켓을 쓸 것이며 여러분은 법정에 가야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벌금은 백오십불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기를, “그럼 재판관을 만나고 싶은데 뭘 받으실 겁니까?” 그러면 그들이 법정에서 언제 나오라는 날짜를 줄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재판관이 말하기를 “당신은 50 마일로 가야하는 곳을 80 마일로 갔기 때문에 벌금을 내게되었는데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무죄라고 탄원하세요? 무죄라고 탄원 합니까?” “재판관님, 그러나--나는--거기에--” “당신이 어떻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탄원 합니까? 당신이 80 마일로 갔습니까?” “ 예, 그렇지만 ---” “100 불입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 “당신은 재판을 법정에서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배심원에 의해 받으실 겁니까?” “네, 법정에서 의해 받는 것을 선택 합니다.” “그럼, 당신은 유죄입니다. 백 불입니다.”

They're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y're only interested in guilt or not guilt. And the sentence is imposed. Now you say, "But Judge, I don't have a hundred dollars." "All right, five days in jail." Now, that's the demand of the law upon you. You're under the law. So the bailiff comes in, he puts the handcuffs on you and takes you off to jail for the next five days. You're under the law. And until you have sat there for five days, the law has the hold over you. Once you have sat there for five days,

then you're no longer under the law. Its demands have been fulfilled and you are now set free.

그들은 실제로 상황의 정상참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죄나 무죄냐에 만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는 다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재판관님, 제게 백 불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일 징역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법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와서 당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오일간 감옥에 넣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으므로 5일을 그곳에서 앉아 지내는 동안 법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번 그곳에 5일을 앉아 있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법의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Now, being under the law of Moses is a little more serious, because the penalty there is death. And so, I'm under the sentence of death by the law of Moses. I'm under this law, under this sentence of death, and I cannot be set free until the law has been fulfilled. And so men, up unto the time of Christ, were under the law, under the sentence of the law, under the curse of the law. But in the fullness of ti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under the law, that we who were under the law might receive this glorious adoption of sons.

모세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좀 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의 법으로 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법 아래 있으며 또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법이 만족될 때까지 나는 자유롭게 풀려 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과 율법의 선고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율법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양자가 되는것을 받아드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여인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Now I am a son of God, but not in the same manner as Jesus is a Son of God. Beware of any teaching that would put you on an equal par with Jesus Christ. There are some very dangerous teaching by some of the popular Pentecostal evangelists in which in their books they finally come to the conclusion. Of course, they have books on the authority of the believer and things of this nature, and in some of their books they'll finally write, “So that I am Christ. Thus, I can make demands upon God, because I am Christ.” That is extremely pernicious heresy.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등한 아들로 여러분을 올려놓는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위험한 가르침이 어떤 유명한 오순절 복음 전도자들로 인해 가르쳐 지고 있으며 그들의 책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쓴 책이 믿는 사람들과 이러한 성격의 일들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에 결론을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해를 끼치는 이단입니다.

I am not a son of God as Jesus is a Son of God. He was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ere's only one begotten Son of God, that is Jesus Christ. I am a son of God, yes. I'm an adopted son of God; God has adopted me into His family. Now I'll take that. I love that. It's great to be a son of God even if by adoption. I was born by the Spirit, born again into the family of God, but yet, it was by adoption that God chose me.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so that He came to redeem those that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of sons. And because ye are sons, God hath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crying, Abba, which is the Hebrew word for daddy. That beautiful, close, intimate relationship that God wants you to experience with Him, to look to Him as your Daddy, as your Father.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분인 독생자가 있었으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며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받아 드릴 것이며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중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우리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바라고 부르겠습니다. 히브리말로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름답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빠 같이 또 아버지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Jesus said, “And when you pray, say,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Matthew 6:9). That beautiful, close relationship with God. “Wherefore you are no more a servant, but a son.” As a child under the law, you didn't differ at all from the servants. You couldn't really have the

inheritance. The inheritance comes through Jesus Christ. It does not come through the law. The law was the tutor unto the time of Christ. Once Christ is come, the promise fulfilled. Now, by faith we are redeemed from the law that we might be adopted as sons of God, and as the sons of God, now become the heirs of the promises of God and of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If a son, then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 6:9). 그것은 하나님과 아름답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어린아이가 율법 아래 있는것과 같이 여러분도 종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율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때를 가르쳐 주는 가정교사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일단 오셨으므로 그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율법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Howbeit then, when ye knew not God, ye did service unto them which by nature are no gods. But now, after that ye have known God, or rather are known of God, how turn ye again to the weak and beggarly elements, whereunto ye desire again to be in bondage? (4:8-9)*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4:8-9)

Now, there are people who really know not God, and yet, they do all kinds of ritualistic things. They'll put on grotesque masks, and they'll paint their bodies, and they'll go through a dance. And they will wave swords and they will go through all kinds of gyrations, physical gyrations, and they will assure you that by doing these things they are going to bring rain. For they have just, you know, gone through the rain dance thing, and now the gods are going to send rain as the result of these incantations and machinations that they have gone through. Wearing their various colored robes or loincloths, or whatever the case may be, because you find in different cultures all different

kinds of of get-ups and dresses for these men who are doing these things as service unto God to bring the favor of God upon the people.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종류의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상한 가면을 쓸것이고 자신들의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춤을 추면서 지나 갈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회전을 할것이며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비를 오게하리라고 확신할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금방 비 오게하는 댄스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행한 주문과 책략의 결과로 이제 그들의 신이 비를 보내줄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색깔의 두루마기를 입거나 허리 띠를 띠든지 무엇 이든지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나 의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Now, in the church, we have men who put on robes of different colors and high hats, and wave scepters over the people, shake water on them, and declare that by these things they can bring God's blessings upon your life. That's exactly what Paul is talking about. When you were still heathen, when you were still pagans, "you did service unto them which by nature are not really gods." You were doing your pagan exercises, your pagan rituals. "But now, after you have known God, or rather are known of God, how is it that you're turning back to this ritualistic relationship, to the weak and the beggarly elements, whereunto they desire again to be in bondage?"

교회 안에서 색깔이 다른 두루마기를 입고 높은 모자를 쓰고 사람들에게 흠을 흔들고 그들에게 물을 흔들면서 뿌리며 선언하기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게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방인 이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이교도였을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중 노릇 하였더니" 여러분이 이교도로 살며 이교도의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기 저희에게 중 노릇 하려 하느냐?"

Most of the practices of holy days and so forth that we have in the church come from heathen, pagan practices. So,

*Ye observe days, and months, and times, and years (4:10).*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날들이나 절기들은 이방과 이교도들이

지켰던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4:10)

You have your Lent season. You have your All Saints day. Going back to the weak and the beggarly elements of the past, rather than going forward into this new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I imagine a lot of radios have just been turned off, but that's the truth. Paul said,

*I am afraid of you [or I am fearful], lest I have bestowed upon you labor in vain. Brethren, I beseech [beg] you, be as I am; for I am as ye are: ye have not injured me at all (4:11-12).*

사순절과 성도제의 절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앞으로 가는 것보다 도리어 약하고 천한 과거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라디오가 그저 꺼져 있는 것을 내가 상상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1-12)

"Now, don't be offended with me," Paul is saying. "I'm not offended with you. Be as I am. I'm not angry, I'm not offended; I love you. But I've got to tell you the truth, and sometimes the truth is painful. So don't be upset with me. Be as I am, for I'm really not upset with you. You've not really injured me. So be as I am, don't be injured by me or feel injury towards me." For Paul said,

*Ye know how through infirmity of the flesh [or the weakness of the flesh] I preached the gospel unto you at the first. And my temptation [or trial] which was in my flesh ye despised not, nor rejected [me]; but [you] received me as an angel of God, [you received me] even as Christ Jesus (4:13-14).*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나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내가 화를 낸것도 아니고 기분도 상하지 않았으며 나는 여러분을 사랑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야겠고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기분이 언짢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러므로 나처럼 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게 해를 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러하니 나처럼 되시고 나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나에게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4:13-14)

When I came to you, I was weak. I was sick. I had a real problem physically. But yet you openly accepted and received me like an angel of God or even as Jesus Christ Himself.

*Where is then the blessedness ye spake of?* (4:15)

내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는 약했고 몸이 아팠었습니다. 나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용납 할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처럼 받아 주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4:15)

When they first received the gospel through Paul, oh how happy they were. How joyful, as their lives were transform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Now these men have come in and brought in these perverse teachings, brought them into a ritualistic relationship. Gone, have gone back to some of the weak and the beggarly elements. Tried to put them under regimen and a routine and a ritual relationship with God, rather than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Paul said,

*for I bear you record, that, if it had been possible, ye would have plucked out your own eyes, and have given them to me* (4:15).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행복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를 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괴상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그들을 의식주의적인 관계로 끌어들이어 일부의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어떤 지배 아래서 기계적이며 의식주의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

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거 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4:15)

So, this is no doubt a hint towards what Paul's weakness in his flesh was: an eye problem. Now in those days, they had some oriental diseases affecting the eyes, causing a constant kind of a pink eye condition, the running sort of conjunctivitis of which they had no cure. And so, it would affect the eyesight. It was repulsive to look at, and some believe that this is what Paul had. And yet, Paul says, you know, "You received me; you love me so much that some of you would have been glad to give your eyes, given your eyes to me."

*Am I therefore become your enemy,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4:16)

그래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울이 그의 육체에 가진 약함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눈에 영향을 주는 동양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을 계속적으로 빨갛게 되도록 하며 고칠 수 없는 결막염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은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보기에 불쾌하게 보이는 이병을 바울이 가졌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너무 사랑함으로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기쁘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4:16)

You know, some people make it hard to really be honest and truthful with them, because of the way they react. Some people rebel against the truth. Some people don't want to hear the truth. "I'm comfortable the way I am. Don't bother me with facts, my mind is made up. Now I don't want the truth. Tell me how well I am. Tell me how good I am. Tell me how nice I am. Don't tell me the truth. I don't want to hear the truth." And so, there are those that are bound within a certain system in relating to God. "This is the way my father did it. This is the way my grandparents did it. Don't bother me with the truth. I'm happy here. I'm satisfied here. I don't have to do much. Just sit and watch." And people are disturbed by the truth. Paul said, "Have I become your enemy because I've told you the truth?" Now,

*They zealously affect you (4:17),*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의 반응 때문에 어떤 삶들은 그들과 솔직하고 진실하게 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편안 합니다. 나를 그 사실로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진실을 원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해 주시고 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진실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어떤 제도안에서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셨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방법이구요. 그 사실로 인하여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행복하며 만족합니다.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로 인해 불안하게 느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4:17)**

And many of these persons are extremely zealous in their presentation.

*but not well [it is not good]; yea, they would exclude you, that ye might affect them. But it is good to be zealously affected always in a good thing, and not only when I am present with you (4:17-18).*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표현으로 볼때는 대단히 열심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4:17-18)

So, these guys are there. They zealously affect you, but actually they would exclude you from God for that, that you might affect them. That you might support them and all. So Paul said,

*My little children [term of great endearment], of whom I travail in birth again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4:19),*

So, Paul's response is travailing prayer. "Oh, my little children, for whom I travail in birth 'til Christ be formed in you."

*I desire to be present with you now, and to change my voice; for I stand in doubt of you (4:20).*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그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을 다 지지 할수 있으니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4:19)**

그래서 바울의 반응은 해산하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4:20)**

Now, writing is, many times, difficult because you don't hear the tonal inflections. And many times, it's the way something was said that causes you to interpret what is being said. And this is the unfortunate part of the scripture, because I think that many times we misinterpret the scriptures, because we read into it a tonal inflection, which may not necessarily be there.

편지로는 음색의 억양을 들을수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로 쓴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그 말한것을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못해석하게 되는데 음색의 억양을 읽어야 할때 그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For instance, when God came to Adam in the Garden of Eden after Adam had disobeyed, and God said, "Adam, where art thou?" What was the tone of voice? And I'm certain that many times we think it was the tone of voice of an arresting officer ready to haul you off to jail. "Adam, where art thou?" Yeah, you know. But I really believe that that was, if you heard the tone of voice, the sob of a heartbroken father whose child had just messed up. "Adam, where art thou? Oh, Adam, what have you done?" And I don't hear judgment and thunder ringing in the voice of God; I hear heartbreak in the voice of God.

예를 들면,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오셨을 때 하나

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목소리의 어조가 어떠했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로는 많은 경우 그것은 당신을 끌어내어 감옥에 집어넣을 준비를 해놓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어조로 생각할것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엉망진창이 된 자녀를 가슴 아프게 찾고 있는 어떤 아버지의 부르짖는목소리의 어조를 들어 보았다면 내가 믿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줄 압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 아담,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내게는 아무런 심판의 소리도 천둥 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So many times, I think we imagine God thundering on us in heavy judgment, when in reality, His heart is broken over our failure, and His desire is to restore us. “My little children, for whom I travail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Oh, how I wish I were there to change my tone of voice so you can hear my tone of voice, because I really stand now in doubt of you.”

*Tell me, ye that desire to be under the law (4:21),*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you're doing? You that want a legal relationship to God,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this entails? Do you really know what this means?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천둥 치듯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상상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상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듯 아파하시고 우리를 회복 하시는 것이 그의 바라심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 내가 너희와 그곳에 있어 나의 음성을 바꾸어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

####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4:21)**

여러분이 무얼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율법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 뒤에 무엇이 따라 오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the one [was] by a bondmaid, the other [was] by the free woman. But he who was of the bondwoman was born after the flesh; but he of the free woman was by promise of God. Which things are an allegory: for these are the two covenants [that God has made];*

*the one from the mount Sinai, which gendereth to bondage, which is Agar [that is, the flesh]. For this Agar is mount Sinai in Arabia, and answereth to Jerusalem which now is (4:22-25),*

That is, all of the temple, and the law, and all of the ritual in the relationship to God through the law and through the temple, the Jerusalem which now is,

*and is in bondage with her children. But Jerusalem [the spiritual Jerusalem] which is [from] above is free, which is the mother of us all. For it is written, Rejoice, thou barren that bearest not; break forth and cry, thou that travailest not: for the desolate hath many more children than she which hath a husband (4:25-27).*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4:22-25)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성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성전의 모든 것과 율법과 모든 의식을 말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보다 많음 이라.(4:25-27)

Now, this is quoting from Isaiah 54, and it is a scripture that relates to Israel when God restores upon Israel the national favor and blessing again. And as they then look back, they will see that God has brought forth many more children from the Gentile nations than from Israel. The weeping, the chagrin that will come to them when they realize that they have rejected God's Messiah. And they see how that from among the Gentiles, God has brought forth these millions to believe. And so, the barren has brought forth more children than she which had a husband, the nation of Israel. And so, those that are of the promise. Those that are of the Spirit contrasted to those that are of the flesh.

이것은 이사야 54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은총과 축복을 회복하실 때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를 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 보다 이방 민족의 자손들을 더 많이 하신 것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분함 과 울음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수만의 믿는 자를 불러 일으키셨는지 그들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치 못한 자가 남편 있는 자, 이스라엘 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을 대조한 것입니다.

Paul uses the allegory of the line of the flesh, Hagar. That was a fleshly expediency by Sarah and Abraham in attempting to help God out. And when Ishmael was about thirteen years old, Abraham was sitting in the tent, and God said, "Abraham, I'm going to give you a son." And Abraham said, "Lord, let Ishmael live before You forever." In other words, "Don't put me on anymore, God, I'm satisfied. I've got Ishmael, you know, given up with Sarah. Let Ishmael." And God said, "No, through Sarah shall thy seed be called." The son of promise. One was the son of the flesh; the other was a son of promise. The two covenants. The law relates to the flesh, but the covenant of promise, that is, of Jesus Christ, relates to the Spirit.

바울은 하갈을 육체적인 계열의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시도했던 육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약 열세 살이 되던 때에 천막 안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 주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자면,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만족 합니다. 제겐 이스마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시다 시피 사라와는 포기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니야, 사라가 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라 불리우리라.” 그가 약속의 자손이라 불릴 것입니다.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약속의 아들 이었습니다. 두 개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육체에 관련되지만 약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령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And thus, in our relating to God, we must either relate to God through the law or through the Spirit. Through the works of the law or through the Spirit. But “by the works of the law it is evident no one can be justified” (Galatians 2:16). So, that leaves us, really: a true relationship with God can only be wrought by the Spirit and your faith in Jesus Christ.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통하든지 또는 영을 통하든지 둘 중에 하나 여야만 합니다. 행해야 하는 율법을 통하든지 성령을 통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6)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Now we, brethren, as Isaac was, are the children of promise (4:28).*

I've been adopted as a son of man, redeemed by Jesus Christ, and I have become the children of promise.

*But as then he that was born after the flesh persecuted him that was born after the Spirit, even so it is now (4:29).*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4:28)**

나는 사람의 아들로 양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 도 그러하도다.(4:29)**

And so, Ishmael was vexing Isaac in time to come. Making fun of him, mocking this little kid. And so, Sarah was upset at the way Ishmael was treating Isaac. And Sarah said, "Get rid of that bondwoman; I can't take it anymore." And Abraham was hurt over this, because he loved Ishmael; he was his son. But the Lord spoke to Abraham and said, "Listen to your wife Sarah." And so, Abraham put out the bondwoman and her son.

*Nevertheless what saith the scripture? Cast out the bondwoman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e bondwoman shall not be heir with the son of the freewoman. So then, brethren, we are not children of the bondwoman, but of the free (4:30-31).*

그래서 이스마엘은 때가 이르기까지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를 놀리기도 하고, 이 작은 아이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것 때문에 사라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이 여종을 내어 쫓아 버리시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



을 사랑했으며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하는 여자의 자녀니라.(4:30-31)

The bondwoman referring to the law, to Mount Sinai, could not bring man into the blessings of God. All it could bring man was the curse. It is interesting, you remember when the children of Israel came into the Promised Land under Joshua, and they came to the area of Shechem. Representatives of six tribes were to be on Mount Gerizim and representatives of six tribes were to be upon Mount Ebal. Now, those that were on Mount Ebal, the mount of blessing, didn't say anything, because the law could not bring a blessing. But those that were upon Mount Gerizim, twelve times said, "Cursed be the man." And they would call this down, and it would echo down into the valley of Shechem where all of the people were. Because the law could only bring a curse, it could not bring redemption; it could not bring a man into the blessings of God. It is the Spirit through Jesus Christ that brings you into the blessing of God.

그 여종이란 율법과 시내산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이끌어 드릴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것은 저주뿐입니다. 이건 흥미로운 겁니다. 여호수아의 통솔아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세겜 지역에 들어온 그 때를 기억 하고 있습니까? 여섯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리심 산에 그리고 다른 여섯 지파의 대표자들은 에발산에 있게 했습니다. 축복의 산인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축복을 가져 올 수가 없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심 산에 있던 사람들은 열두 번이나 말하기를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세겜 골짜기 아래 까지 메아리쳐 들리게 됩니다. 율법은 오직 저주만 불러오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하는것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We are not the children of the bondwoman. We don't relate to God through the law. We do not relate to God through our works or through our righteousness. But we relate to God through the promises of God given to us, which we, by faith, believe and accept, and enter in and receive then the

blessings of God. Something the law could not do is to bring me into the blessings of God, but my faith in Jesus Christ causes me to abound in the blessings of God.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들이 아니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드리며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데려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This teaching of Paul to Galatians is important because we all seem to hold onto a concept of reward for good, punishment for bad. And that's life. That's the way we grew up. That's the way we were trained. The enforcement of good behavior by reward, the punishment of bad behavior. That's all I've known all my life. But that is not how I relate to God. And it's important that when I seek to relate to God, that I dismiss this concept by which I was trained. And that I relate to God through faith, believing the promises of God that He loves me and wants to bless me. And believing God to bless me even though I know that I have failed. I know I don't deserve it. I know I'm not worthy. I know my works don't measure up to it. But to receive by grace the blessings of God through the promises. I'm a child of the free woman, a child of promise. And since discovering that, I have never ceased to receive the blessings of God in an ever-increasing measure.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친 이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좋은 일을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관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 왔으며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좋은 행동은 상을 줌으로서 또 나쁜 행동은 벌을 줌으로서 시행케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삶을 통하여 아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찾을 때 내가 훈련 받은 이 관념을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실패한것을 내 자신이 알찌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으며 내가 행한 일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나는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인 약속의 아들 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나는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This past week I met a young man who was here at Calvary Chapel when we first started. Through some tragic experiences, turned away from God, was bitter against God, and for years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Christ or with God. He was bitter. I had a funeral this past week for his grandmother. He was there. He came up and put his arm around me, hugged me, told me how glad he was to see me, and how he had recommitted his life completely to Jesus Christ. He said, "You know what it was?" He said, "God just kept blessing me." He said, "Every way I turned, I was blessed of God. He just kept blessing me so much I couldn't handle it. I finally just said, 'God, I give up, I can't handle it. Your blessings are so marvelous!'"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에서 갈보리 채플을 처음 시작 할 때에 있었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비참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여기면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나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는 원한으로 찻으며 지난주에 내가 그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을때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오더니 그의 팔로 나를 껴안으면서 나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재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축복 하셨습니다. 내가 향해 가는 모든 길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나를 축복 하셨습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He said, "I kept waiting for the ax to fall. I kept waiting for God to really, you know, wipe me out." But he said, "He never did. He just kept blessing me and I couldn't handle the goodness of God. So, I just dedicated my life to Him again." I said, "The scripture says, 'Don't you realize it's the goodness of God that brings a man to repentance?'" Oh, God is good. We're children of the promise. And God wants to bless you. Why don't you let Him? Just believe Him to bless you. Trust Him to bless you.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도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싹 없애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계속 나를 축복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그에게 재 헌신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을 축복하여 주실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 하십시오.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You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thank You for this new covenant, the covenant of promise based upon Your work that You have promised to do. And because, Lord, it's based upon Your work, it is sure. For Your work is sure. Lord, bless Your people tonight. May they go from here, Lord, blessed in every direction, as you pour forth upon them Your love, Your blessings, through Jesus Christ. Amen.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 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감사 합니다. 새로운 약속, 주님의 일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시듯 그들이 이곳을 떠나 어느 쪽을 갈지라도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You know, I wouldn't dare to say these things unless the scripture did. Because it's not really, you know, according to my conceptual thinking. This isn't the way I respond. I respond, you know, in the old ways to people. You're nice to me; I'll be nice to you. Good to me; I'll be good to you. Get nasty with me; I'll get nasty with you. It's hard to handle God and the grace of God. His goodness to me, though I have failed, though I don't deserve it. But because the scripture teaches it, I dare not depart. I dare not declare anything else.

성경 에 쓰여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의 개념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반응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옛날식으로 응답 합니다. 여러분은 내게 잘해 줍니다. 나도 여러분한테 잘하겠습니다. 내게 잘하고 여러분에게 잘하고. 내게 못나게 굴면 나도 여러분에게 못나게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는 실패하였고 나는 가치가 없는 자 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어떤 것이라도 단언 하지 않습니다.

I must declare to you what God has declared to be true of y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of His desired relationship with you. He doesn't want a legal relationship; He wants a loving relationship. He wants you to

love Him and to know how much He loves you. And He wants you to come to Him on that basis of love, His love for you. And when you learn to come to that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your life would be blessed, so blessed, because you're not now limiting the blessings to your works of righteousness. You're not keeping back the blessings because of your lack of works of righteousness. But you're being blessed on the basis of God's promise and God's work for you in Jesus Christ, which never ceases.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참된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여러분과의 관계의 참됨을 나는 여러분한테 단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스러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았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축복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부족하다 하여 여러분의 축복이 뒤꼍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치지 않습니다.

Father, let this be the turning point of our lives tonight. Impress Your truth upon our hearts in Jesus' name. God bless you.

아버지, 이것이 오늘밤 우리 삶에 큰 변화가 되는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참됨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명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